



김 태 석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

다문화가족의 증가와 정책과제

거리에서 외국인의 모습을 접하는 것이 일상화 된지 오래이다. 학업 또는 취업 등 다양한 이유로 한국을 방문하여 체류하는 외국인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행정안전부 통계에 따르면 '09.5월 현재 외국인 주민은 총 1,106,884명으로 우리나라 전체인구(49백여만명)의 2.2%에 해당하며, '08년 891,341명 대비 24.2% 증가하였다.

국내 거주 외국인의 증가 추세 중 눈여겨 보아야 할 부분이 결혼이민자의 증가 현상이다. 2000년대 들어 남녀간의 성비불균형, 의식의 변화 등에 따라 국제결혼이 급증하고 있는 바 통계청의 혼인통계에 따르면 '09년 국제결혼은 총 33천건으로 전체 혼인건수(309천건)의 10.8%를 차지하며 2004년 이후 줄곧 10%이상의 비율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한국민과 결혼하여 장차 한국국적을 취득하거나 영주권자로서 자녀를 양육하면서 한국사회에 정착할 예정이라는 점에서 이들 결혼이민자는 다른 외국인과는 차별화되며 정책적으로 특별히 관

리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을 위해 2008년 3월 제정된 다문화가족지원법에서는 결혼이민자와 한국에서 출생한 한국민으로 이뤄진 가정을 다문화가족이라 정의하고 있다.

이들 다문화가족은 한국민으로 이뤄진 일반 가정에 비해 여러 면에서 취약한 것이 현실이다. 서로 다른 언어로 인한 부부간의 의사소통 문제부터 문화차이, 주변가족의 몰이해, 외국인으로서 겪게되는 외로움 등 다양한 어려움을 안고 있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가족형성기, 자녀양육기, 가족역량 강화기 등 다문화가족 생애 주기에 따른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가족형성단계에서는 결혼이민자의 한국사회 적응을 지원하고 있는 바 입국전 외국 현지에서 사전정보제공프로그램을 통하여 한국의 문화, 언어, 생활정보 등에 대해 교육하고 있다.

입국 후에는 지역사회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서비스 전달체계로 2007년부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센터에 대한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점차적으로 개소수를 확대하여 '10년 현재 전국에 159개소에 이르고 있다.

센터에서는 한국어 및 한국생활·문화교육 등을 실시, 결혼이민자의 사회적응을 지원하고, 배우자 및 시어머니 등 가족을 대상으로 한 교육 및 각종 상담 등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국어 교육은 초급단계부터 고급단계까지 세분화되어 수준있는 교육이 이뤄지고 있다. 또한 임신, 출산 등의 사유로 센터 방문이 어려운 가정을 대상으로 한국어, 자녀 양육방법 등에 대해 방문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09년부터 기 정착한 결혼이민자를 활용하여 신규 입국자를 대상으로 통·번역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가족내 의사소통을 비롯하여 병원, 법원, 자녀학교 방문 등 각종 상황에 동행하여 결혼이민자의 의사소통을 지원하는 동시에 기 정착한 결혼이민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일석이조의 사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자녀양육기의 다문화가족은 임신·출산 및 자녀양육을 경험하는 시기로 이에 대응하여 임신·출산지원 및 자녀양육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다문화가족의 증가에 따라 다문화가족 자녀도 동시에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외국인 주민실태조사에 따르면 '09년 국제결혼가정 자녀는 103,484명으로 '08년도(58천명)에 비해 45,470명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가정에 따라 편차는 있으나,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언어발달, 인지능력 등에 있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어 우리의 소중한 미래자원인 이들에 대한 지원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정부는 전문언

어치료를 채용, 다문화가족 자녀의 언어발달상황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프로그램을 '09년 부터 실시하고 있다. 현재 전국에 100여명의 언어치료사가 활동하고 있으며 '10년 4월말 현재 총 1,770여명의 아동이 지원을 받고 있다. 또한 다문화가족 자녀를 위한 이중언어교실을 운영하여 어머니라 언어를 구사하고 다문화 감수성을 갖춘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

2009년 실시한 다문화가족실태조사에 따르면 다문화가족의 59% 이상이 월소득 200만원 이하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가족의 경우 부부간 연령차이가 평균 10세이상으로 큰 편으로 결혼이민여성의 취업활동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다문화강사, 원어민강사 및 통·번역사 등 이민자 적합직종 개발-교육·훈련-일자리 연계 체계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지역내 자조모임,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등을 통해 결혼이민자의 사회연계를 지원하여 다문화가족의 경제사회적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현재 다문화가족의 증가추세가 지속될 경우 2050년 결혼이민자와 자녀를 포함한 결혼이민 인구는 226만명으로 총 인구의 5%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들이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할 수 있도록 통합적인 정책 수립의 추진 필요성에는 이문의 여지가 없다고 본다. 다만 현재 정부부처별로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이 실시되고 있어 일정부분 중첩현상이 있고 특히 지원정책의 대부분이 입국초기 결혼이민자의 사회적응에 집중되어 있는 바 향후 다문화가족자녀 및 결혼이민자의 취업 등에 대한 다양한 지원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본문
복사